소식지 제721호/2026년 7월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세상, 아이들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글 쓰게 하면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학급문집에 나타난 어린이 마음.

← *아이들이 표지를 그린 학급문집*

- 오늘은 어제보다 나무풀 색깔이 더 예뻐진 것 같다. 그리고 햇빛도 더 밝아졌다. 나도 밝아진 것 같다
- 엄마, 아빠. 부탁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 똥 싼다고 혼내지 말고 바닥에 오줌 싼다고 화내지 마세요. 사랑해요
- 신발이 이렇게 아파하는 줄 몰랐다. 도로를 밟아보니 따갑네. 미안해 신발아, 난 아파하는 줄 몰랐어
- 3박 4일 연휴라 너무 좋다. 월요일은 피아노와 태권도 빠지고, 화요일은 피아노와 영어, 수요일도 피아노와 태권도가 빠지고 목요일은 학교 간다. 그래서 너무 좋다



- 오늘 드디어 병아리를 만져봤다. 콩닥콩닥 심장도 뛰고 발도 꼼지락거린다. 자세히 보니 입이랑 발도 살구색이다. 보면 볼수록 보드랍고 귀여웠다. 사랑해!
- 학교 오는데 종이 모으는 할아버지께 어떤 아주머니가 신문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이 모습 보고 그 아주머니를 존경하게 됐다
- 비가 떨어지면 탁 소리가 난다. 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프겠다. 폭신한데 떨어지면 좋을 텐데-
- 이모할머니께서 용돈으로 만원을 주었다. 엄마는 우리 용돈을 뺏어 저금하는데 이번에는 안 빼가서 다행이다
- 문구점 앞에서 토끼를 봤는데 같이 놀고 싶었다. 심심해 보여서. 토끼가 떨고 있다. 추운가 보다



우리가 기증하는 어린이잡지를 받아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4월 학급문집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날 모인 선생님들은 지난 2월의 어린이잡지 광고를 보고 신청한 분들인데 지방 도시에서 6명 그리고 한벗이 돕는 양곤의 사원학교 선생님 2명 등 모두 8명입니다.
대도시 아이들이 아니라 소도시 초등학생이라 더욱 좋습니다.

어린이잡지사 발행인 〈**틴카잉**〉 선생(앞줄 오른쪽 두 번째)은 앞으로 어린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생님이 참여할 것이라며, 미얀마 어린이 교육에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일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처음 만들 학급문집 제작비는 〈미얀마방정환기금〉에서 지원하며 올해는 10월 중 펴내기로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운동을 이어받고, 어린이 글쓰기교육을 이끄는 **어린이문화연대**(회장 이주영)에서 한국의 학급문집 경험을 전하기 위해 오는 10월 미얀마를 방문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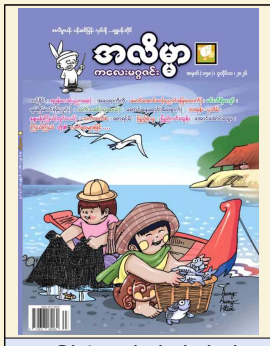
신청 : 02)393-0661



코미디언 황기순 선생의 거리 모금액과 산업은행 직원 기부금으로 지난 2월부터 중고유아차 200대를 수거해 미얀마로 보냅니다.

미얀마에는 유아차가 없어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없는 선물이 됩니다.

한벗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얀마 2,973대, 베트남 660대, 필리핀 150대 등 모두 3,783대를 보냈습니다.



6월호 어린이잡지

「방정환기금회원」이 매월 140곳의 학교와 보육원, 마을도서관에 어린이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 )은 입금 월

월 150,000원 : 김윤원(5, 6) / 재단이사, 미국 교민)

월 75,000원 : 스텔라(5, 6) / 미국 교민)

월 70,000원 : 김윤환(5, 6)

월 50,000원 : 백진양(5, 6) 최재화(5, 6)

월 30,000원 : 김원경(5, 6) 정재언(5, 6) 조재선(5, 6) 최준수/조정복(5, 6) 최광규(5, 6)

월 15,000원 : 김부예(5, 6) 성경희(5, 6) 예옥석(5, 6) 이정애(5, 6) 조정복(5, 6) 최정복(5, 6)

월 10,000원 : 강수연(5, 6) 강제숙(일산/5, 6) 구은회(5, 6) 구자명(5, 6) 권지명(5, 6) 김원애(5, 6) 김인기(5, 6) 김정화(5, 6) 김혜명(5, 6) 민성숙(5, 6) 박봉희(5, 6) 박정희(5, 6) 오승선(5, 6) 이민희(5, 6) 이지영(5) **장혜실**(5, 6) 정영만(5, 6) 정현필(5, 6) 조수연(5, 6) 조정원(1년분) **최복임**(6) 최영삼(5, 6) 한동훈(5, 6)

월 9,000원 : 김유재(5, 6) 심선우(5, 6) 최명숙(5, 6)

월 6,000원 : 김순이(5, 6) 배일택/엄지은(5, 6) 윤소암(5, 6) 최정임(5, 6)

월 5,000원 : 강명희(5, 6) 김미숙/김민효(5, 6) 김원숙(5, 6) 김원심(5, 6) 김정묘(5, 6) 윤신숙(5, 6) 엄해경(5, 6) 이용현(5, 6) 차종태(5, 6) 한미자/정의정(5, 6)

월 3,000원 : 강제숙(5, 6) 김미경(5, 6) 김순자(3, 4) 김연옥(5, 6) 김연수/김인숙(5, 6) 김원희(5, 6) 김종배(5, 6) 김장순/김인숙(5, 6) 김홍원(5, 6) 김홍주(5, 6) 노길용(5, 6) 문해성(5, 6) 배성재(5, 6) 배수현(5, 6) 백정현(5, 6) 서용진(5, 6) 서판임(5, 6) 손미연(5, 6) 심혜숙(5, 6) 안영실(5, 6) 엄해경(3, 4) 오세현(5, 6) 오순희(5, 6) 윤다원(5, 6) 윤시원(5, 6) 윤주원(5, 6) 윤치영(3, 4) 이미경(5, 6) 이수원(5, 6) 이언희(5, 6) 이유진(5, 6) 이은옥(5, 6) 이풍연(5, 6) 이현숙(5, 6) 임경희(5, 6) 임승규(5, 6) 정성용(5, 6) 정춘희(5, 6) 최광선(5, 6) 한영원(5, 6) 홍복표(5, 6) 홍혜경(5, 6)

미얀마인 회원 **월 2,500원** : 틴카잉(5, 6) 난다코코(5, 6) 조린(5, 6)
월 2,000원 : 띤띤쉐(5, 6) 틴커투(5, 6)

5월 계 : 1,143,540원 **6월 계 : 1,052,400원**

※ 잡지 구입비로 월 130만원이 듭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얀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393-0661
(월 3,000원부터)